6일 Market Index
코스피 5059.69 (-324.11)
코스닥 644.27 (-34.14)
금리(국고채 3년) 3.613 (-0.056)
환율(원-달러) 1356.6 (+14.5)

#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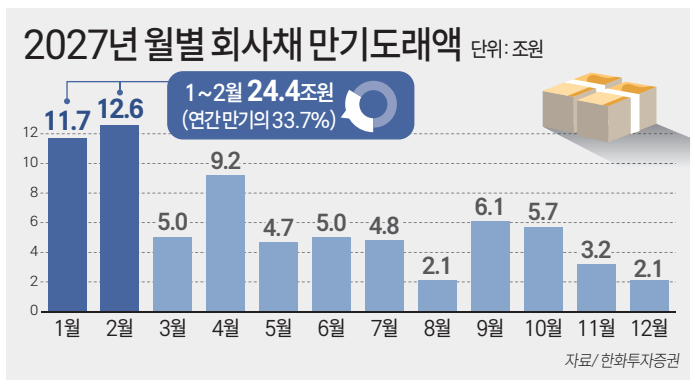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m-커버스토리

## 내년 기업 회사채 72조 만기 도래

# 1~2월에만 24조 빚 폭탄 '잔인한 봄'

### 취약기업 부실 늪 우려




"지난 2024년 회사채를 끌어다 쓴 게 화근이다. 치솟은 금리가 지금과 같다면 빚이 폭탄이 될 것 같다.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면 신규 투자는 고사하고, 운영자금 조달 길까지 막힐 수 있어 걱정이다." (한 중견 기업 재무 담당 임원 A씨)

요즘 각 기업의 자금 담당자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조달 금리는 하늘을 찌르는데, 내년에 갚아야 할 회사채 빚만 72조원에 달한다. 유동성 위기로 취약 기업들이 실제 부실의 늪에 빠지거나 도산한다면 금융시장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8일 투자은행(IB)업계와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기업(금융회사·공기업 제외)이 내년에 상환해야 할 회사채가 72조3010억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인 올해(73조1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 'A+' 이하 비우량 회사채는 16조6030억원어치로 집계됐다. 내년 만기가 많은 것은 지난 2024년 기업들이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늘린 영향이다. 발행사들이 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렸고, 이 물량의 만기가 내년에 돌아온다는 것이다. 실제 내년 전체 만기도래액의 57%(29조원)가 2024년 발행 3년물이다.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연체율은 시장금리에 후행하는 성격"이라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금리도 큰 폭 상승해 온 만큼 추가 연체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다.

중소·중견 기업들에는 '잔인한 봄'이 예고된다. 1~2월 만기도래 물량이 24조3630억원으로 내년 만기의 33.7%가 몰려 있다. 이를 포함해 상반기에 48조2740억원 규모의 만기가 돌아온다.

크레딧 시장 한 관계자는 "상당수 A급 이하 기업은 수년 전부터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내년 이들 기업이 회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AA급 이상 우량 회사의 자금 조달 여건도 빡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초 이후 10월까지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등급은 1조원가량 순상환됐다. 'A+' 이하 비우량 등급은 5조2000억원 순상환됐다. 2017년(5조5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본부장은 "기관투자가들이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만 선호하고 비우량 회사채는 외면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A'급 이하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추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10월 초 기준 신평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별 하향 조정 건수는 지난해 48건에서 올해 71건으로 48% 증가했다. 중앙그룹을 제외하면 업종별로는 제조·전자 기업의 신용도 하향이 두드러졌다. 롯데알미늄(A2→A2-), SK아이이테크놀로지(A→A-), SK넥실리스(A2→A2-), 에코프로(A2, 안정적→부정적), 롯데케미칼(AA-, 안정적→부정적)과 여천NCC(A-→BBB+) 등의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3년 만기에 신용등급 AA-무보증 회사채 금리는 6일 기준 연 4.313%로 지난해 말(연 3.476%) 대비 0.837%포인트 올랐다. 'BBB-' 금리는 같은 기간 연 9.312%에서 연 10.143%까지 치솟았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 글로벌 에너지경쟁 우위 확보 해법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 발전원 다변화 등이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부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 공급망 고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과제를 진단하고 전후방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 2026년 11월 10일(화) 14:00~17:00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metro

# 보유 현금 215조… 주주환원·미래투자 드라이브

**삼성전자, 현금 24.8조 늘어**
**연간 주주환원 90조~110조**
**남은 재원 55조~75조 예상**
**올해 84.4조 시설투자 계획**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국내 기업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과 현금 창출력이 동시에 개선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주주환원과 미래 사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확보했다. 다만 막대한 자금력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동시에 총수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친 현금 자산은 214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190조원보다 24조 8000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08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도 197조 6000억원에 달한다.

늘어난 현금은 주주와 미래 사업에 동시에 투입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5조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연간 주주환원 규모가 90조~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재원은 55조~75조원이다. 추가 환원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시설투자 계획은 8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52조 7000억원보다 약 60%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76조 8000억원이 반도체 부문에 집중된다. 메모리 신규 생산시설과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등에 투자해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연구개발(R&D) 투자도 공격적이다. 3분기까지 누적 연구개발비는 41조 7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인 37조 7000억원을 넘어섰다. 연간 50조원 돌파가 예상되면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을 합친 미래 투자 규모는 13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관건은 확보한 자금과 기술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경영 체제다. 이 회장은 반도체를 넘어 로봇과 전장, AI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미래 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로봇 분야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데 이어 RX(Robotics eXperience)사업추진실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냉난방 공조(HVAC)와 전장 사업에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M&A 등을 통해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 삼성전자-현대차, 경영진 총집결

### 오늘 더유니버스서 '감사 데이' 사장단·배우자 등 170명 참석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처음으로 그룹 차원의 경영진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양측의 협력이 배터리와 반도체, 전장부품 등 미래차 핵심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경영진이 직접 만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일 오후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연수원 '더유니버스'에서 현대차그룹 주요 경영진을 초청하는 '감사(Appreciation) 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배우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현대차그룹과 이어온 사업 협력에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공연 관람과 만찬 등 친목과 네트워킹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양측이 그룹 차원에서 공식 교류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에서는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에서도 장재훈 부회장과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기아 연구개발(R&D)본부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 그룹은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부품 공급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제네시스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90에 삼성SDI의 각형 배터리가 적용되면서 핵심 전동화 부품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해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용 반도체의 위탁생산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李정부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소멸기금"…내년도 예산 철회 촉구
▲노벨평화상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국회서 '2026 인터넷평화상' 수상 /사진 뉴시스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정치검찰 방탄 시위"·"李대통령 방탄 특검"
▲美 민주당 압승에 안철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마련해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청준비단 구성…12일 첫 출근
▲COP31 오늘 개막…韓, '2035년 전력 비중 35%' 국제서약 동참